

스웨덴, 1분 도시 향한 'Street Moves' 실험

<https://arkdes.se/arkdes-play/nu-flyttar-streetmoves-fran-stockholm/>

<https://www.vinnova.se/en/news/2021/03/the-street-as-a-meeting-place-instead-of-a-parking-lot/>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1-01-05/a-tiny-twist-on-street-design-the-one-minute-city>

스웨덴이 '1분 도시'를 목표로 집 앞 거리를 커뮤니티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편해 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청(Vinnova)과 스웨덴 국립건축·디자인센터(ArkDes)가 진행하는 'Street Moves' 프로젝트는 거리에서 이웃과 만남, 운동 등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활기차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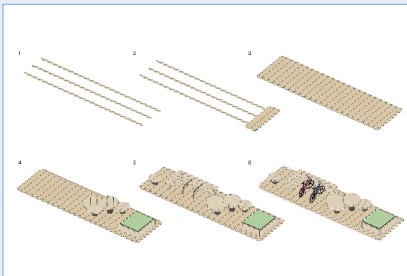
이때 디자인 회사인 룬드버그디자인(Lundberg Design)과 함께 개발한 목재 가구 키트가 활용되는데, 이 목재 가구 키트는 표준 주차공간 크기에 맞추어 내구성 강한 소나무로 설계되었다. 주민들은 워크숍 등을 통해 각 지역의 디자인 방향을 도출하고, 목재 가구 키트를 조합하고 활용해 원하는 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목재 가구 키트에는 벤치 등 좌석, 놀이공간과 운동시설, 텃밭, 자전거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거치대, 전기차 충전소 등 필요한 시설을 마치 레고(Lego)처럼 부착할 수 있다.

스웨덴 혁신청은 예테보리(Göteborg), 헬싱보리(Helsingborg), 스톡홀름(Stockholm)의 거리에서 'Street Moves'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이 거리의 변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단 10%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였다.

스웨덴 혁신청의 전략디자인 디렉터 댄 힐(Dan Hill)은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Street Moves는 파리의 15분 도시, 바르셀로나 슈퍼블록과 비교해 훨씬 작은 단일 거리, 현관문 바로 앞의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거리와 같은 일상적인 인프라야말로 대중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하며 제공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설명하였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모든 거리를 이러한 아이디어 아래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undberg Design



목재 가구 키트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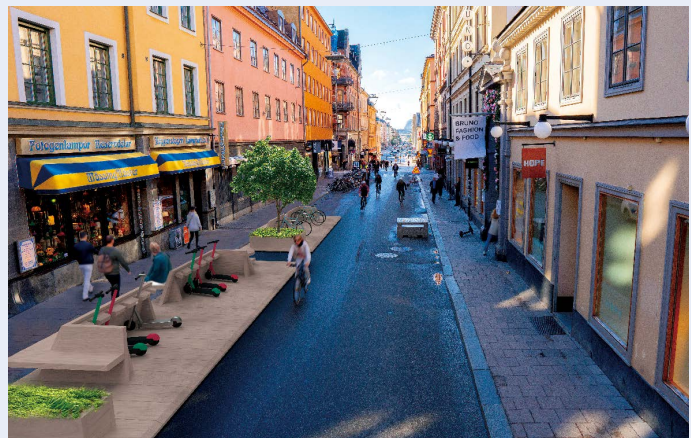
출처: <https://pressrum.arkdes.se/media/121137/byggsatsen-systemet-step-for-stepjpg>

©Utopia arkitekter



Street Moves를 통한 거리공간 활성화 계획

출처: <https://pressrum.arkdes.se/media/150485/street-moves-cred-utopia-arkitekter-utopia-architectspng>



Street Moves 적용 예시

출처: <https://pressrum.arkdes.se/media/121129/exempelbild-gotgatan-byggsats-p-plats-med-gronskajpg>

©Lundberg Design